

도내 사업체 수, 2010년 대비 17.6% 증가

14만 6654개... 완주에서 증가율 가장 커 음식점업 부동의 1위... 전국증가율 세번째

전북의 사업체 수는 14만 6,654개로 2010년 대비 1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경제총조사'로 본 지난 5년간 전라북도 시군별 사업체 구조변화에 따르면 도내 사업체 수는 2010년 대비 2만 1,949개 늘어난 14만 6,654개, 종사자 수는 10만 3,327명 늘어난 66만 9,130명으로 집계됐다.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완주군으로 조사됐다. 시군별 사업체 수를 2010년과 비교

해 보면 완주군이 6,377개로 40.6% 증가했고, 진안군 27.1%(1,841개), 전주 시 24.5%(5만 2,388개) 순이었다.

시군별로 사업체 수 구성비를 보면 전주시가 35.7%, 익산시 15.6%, 군산시 15.2%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사업체 구성비는 2010년 대비 전주시 2.0%, 완주군 0.7%, 진안군 0.1% 증가한 반면 나머지 11개 시군은 감소세나 보합세로 조사됐다.

시군별 종사자수는 완주군이 4만 8,304명으로 52.5% 증가했고, 진안군

이 7,926명으로 24.9%, 전주시가 23만 2,584명으로 21.2% 증가했다.

시군별로 종사자수 구성비를 보면 전주시가 34.8%, 군산시 16.2%, 익산시 16.1%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체당 종사자수는 2010년 4.5명, 2015년 4.6명으로 집계됐다.

전북도내 14개 시군 모두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부동의 1위 업종은 음식점업으로 조사됐다.

산업소분류별 종사자수가 가장 많은 업종도 1위는 음식점업이 차지했으며, 2위는 도로화물운송업, 3위는 섬유, 의복 등 가죽제품 소매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완주군은 자동차용엔진 및 자동차제조업이 1위를 차지했다.

도내 음식점업 사업체 수 연평균 증

가율은 2.8%로 제주도 5.3%, 전라남도 3.2%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았다.

반면 음식점 1개당 매출액은 1억 5,040만원으로 전국에서 12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음식점업 증가율을 보면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진안군으로 5.2% 증가한 반면 부안군은 0.9% 감소했다.

전북은 인구수 증가율 대비 사업체 수 증가율이 4.5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수 증가율대비 사업체수 증가율을 시군별로 보면 전주시가 15.7배로 가장 높고, 정읍시 9.2배, 익산시 9.0배 순으로 나타난 반면 부안군은 -1.8배로 집계됐다.

/인재용 기자

찾아가는 전북이동코트라 운영

전북KOTRA지원단, 도내 수출기업 대상

전북KOTRA지원단(단장 채승완)은 도내 수출기업을 상대로 애로나 고충을 해소하고자 찾아가는 전북이동코트라(수출전문위원 최연호)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코트라는 수출전문위원이 직접 이동코트라 차량을 타고 전북지역 어디든지 애로가 있는 수출기업 현장을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사무실에서 벗어나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는 점에서 차별화 되고 있다.

이동코트라는 현장에서 기업의 GCI테스트를 바탕으로 수출역량을

진단하고 해외시장정보제공, 해외 바이어 찾기, 해외전시회 수출입 실무등 코트라 마케팅 서비스를 안내 한다.

최근 이동코트라 지원을 받아 석재가공업체 A사는 중국에 현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며 수출에 성공한 바 있다고 한다.

한편 채승완 전북 KOTR 지원단장은 "도내 기업인 40여명을 초청, 간담회를 갖고 중소 중견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맞춤형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확대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도내 식품산업 역량강화 '주력'

비즈니스 프로그램 확대·사후관리 지원사업 추진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비즈니스 프로그램 확대와 사후관리 지원사업 추진으로 도내 식품산업 역량강화에 주력키로 했다.

전북도와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은 25일 오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 대한 사업 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엑스포에서는 마케팅, 전시, 컨퍼런스, 체험/부대행사로 구분해 진행된다.

먼저 마케팅 분야에서는 엑스포 개

최 이후 사후 관리를 위한 후속 지원 사업을 추진해 지역 식품기업의 성장과 역량강화에 주력하고, 전북도청, 코트라, KT와 연계한 상시 B2B 상담회와 외식산지폐어 개최 등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기업 판로개척 및 성과 확대에 집중키로 했다.

전시 분야에서는 국내외 우수업체 유치 및 선별강화, 식품산업 트렌드와 바이어 니즈를 반영한 R&D 기반 선퍼런스, 체험/부대행사로 구분해 진행할 예정이다.

전시 분야에서는 국내외 우수업체 유치 및 선별강화, 식품산업 트렌드와 바이어 니즈를 반영한 R&D 기반 선퍼런스, 체험/부대행사로 구분해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마케팅 분야에서는 엑스포 개

획적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국제컨퍼런스는 세계적인 학술단체인 국제건강기능식품학회(ISNFF)와 연계 추진해 식품산업 시장 동향, 최신 연구성과 및 신기술 정보 공유의 장으로 구성, 세계적 수준의 컨퍼런스를 개최해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체험·부대행사 분야는 발효식품을 활용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미래 세대에 교육적 효과와 전통식품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모든 세대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

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현장 이벤트를 개발해 방문객 만족도와 참여 확산을 이끌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생진원 김동수 원장은 "올해 발효식품엑스포는 기업과 지역식품 산업 역량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며 "지역 농식품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엑스포가 되도록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5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오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인재용 기자



농어촌공 전북, 순창군 동계면 농업인에 감사패 받아

저수지마저 바다를 드러낸 지역에 대형 관정을 개발한 공로로 농어촌공사 김준채 전북본부장이 순창군 동계면 농업인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40년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용수공급이 어려운 순창 동계면의 상습 한해지역에 농어촌공사의 자체자원과 인력기술을 투입해 1일 약 1,000톤의 취수 가능한 관정개발에 성공했다.

이 지역의 지하수 개발이 어려워 농어촌공사의 전문 기술진과 장비를 전

력 투입해 수차례의 시도 끝에 결국, 성공으로 이끌어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에 순창지역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했다.

김준채 본부장은 "현재 지하수 수질 검사 단계를 거쳐 8월에는 지하수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완공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상수도 가뭄지역 및 영농편의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농업인들에게 감사에 인사를 전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중기청,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신청·접수

전북중소기업청은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 R&D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기술적 보완자산 획득을 지원하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3차)' 과제를 오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은 대학·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격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사업기간은 최대 1년이고 최대 1억원(정부지원금)까지 지원한다.

/인재용 기자

첫걸음 협력은 정부 R&D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설치하려는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R&D를 지원하며, 도와 협력은 기술적 우수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종사자 수 5인 이상 또는 매출액 5억원 이상인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공동 R&D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 3차부터는 인건비 현물 계상 예외 변경 사항으로 창업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소속직원과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로 근무 중인 여성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 가능하다.

/인재용 기자

경진원, 순창장류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 시행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순창 장류 소공인 집적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순창장류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을 26일 환경개선사업 평가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한다.

경진원은 시행에 앞서 6월 말 전반적 사업설명과 의견수렴, 협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올 초 소공인협의회를 구성하고 센터와 워크숍을 진행했다.

올해 시행되는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작업장이나 판매장을 개선하는 환경개선사업처럼 소공인의 관심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난해 사업과 달리 관측행사 지원이나 해외마케팅사업을

편성해 매출에 도움이 되도록 마케팅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시장환경이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공인 인력의 고령화 등 자원부족으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 협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한편, 순창장류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소상공인지원진흥공단이 시행하는 사업이며, 순창군과 발효식품산업진흥원이 경진원과 함께 협력 지원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전북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초청 간담회 개최

전북조달청은 25일 도내 벤처나라등록 업체 및 조달청 새싹기업지정 업체 등 15개 기업을 초청해 간담회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벤처·창업기업들의 판로개척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기술력을 보유한 벤처·창업기업이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통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인재용 기자

임종식 전북조달청장은 "발전가능성, 신기술을 보유한 벤처·창업기업 제품을 공공기관 등이 구매해 지속 성장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도내 우수한 벤처·창업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을 발판삼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응급 구호품 세트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

홍보대사 안계옥